

# 建築設計事務所의 經營(Ⅲ)

## 情報收集과 選擇

참고:〔I〕經營의 基本問題(82年 9月号 게재)  
〔II〕組織의 役割(82年 10月号 게재)

자료: 田中 清著 <建築設計事務所의 經營>에서

設計事務所의 經營活動 — 營業·組織運營·人事·專門業務 등을 포함한 여러 분야의 活動에 根源이 되는 것은 情報이다.

情報의 原點은 人間과 人間의 연결에 있다. 人脈이 重要시되어 사람이 존재하는 곳에는 항상 派閥이 생기는 것도 근본 이유를 따지고 보면 거기에 있는 것이다. 그러면 情報의 本質은 어디에 있는 것인가.

岩崎隆治氏의 주장에 따르면, 그것은

1. 情報란 생각하기 위한 소재이다.
  2. 情報란 行動하기 위한 知識이다.
  3. 情報란 成長하기 위한 糧食이다
- 라고 表明되고 있다. 즉 思考·行動만이 아니고 經驗과 감각분야까지 넓은 思想방법이다.

현대는 情報化社會라고 보통 말하고 있으나 그것은 封建社會에 있어서 地位, 資本主義社會에 있어서 돈과 같이 現代社會에 있어서 情報가 하나의 커다란 價値로서 公認되어 졌음이다.

人間이 어떤 목적에 대해서 생각하고 이해하고, 理解에 따라 행동하여 하나의 목적을 달성하고자 하는 일련의 패턴, 혹은 생각하면서 행동으로 옮기려는 同時進行型의 패턴, 여하튼 그 에너지源이 되는 것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情報에 의한 것이다.

비즈니스로서 활용되는 情報의 종류로서 다음과 같은 분류가 생각되어 진다.

1. 經營·營業에 관한 情報
2. 組織·인사에 관한 情報
3. 專門業務에 관한 情報
4. 資金·資材에 관한 情報

5. 個人的 情報  
또 情報傳達의 루트로서는  
1. 언어에 의해 人에서 人으로 전해지는 情報

2. 視覺·活字에 의한 매스컴 情報(TV·신문·잡지 등)

3. 專門書·報告書·議書·通達 등 의 事務的인 情報

4. 交際·편지·명함 등 의 교환되는 個人情報

라는 經路에 의한다. 다시 말해서 이상의 전반을 통해 말할 수 있는 것은 外部로부터 받는 情報과 스스로 만들어 내는 情報가 있어서 그 交流에 의하여 自身도 事業도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이다.

情報의 收集에 있어서 중요한 점은 무엇 때문에 情報를 모으나 라는 목적과 이유를 확실히 할 것이다. 그러므로 그 方法과 範圍를 한정하고, 동시에 언제까지 그 목적을 달성할 것인가를 時限設定해야 한다. 情報量의 범람이란 말을 자주 들을 수 있으나 실제로 활용할 수 있는 情報는 의외로 적은 것이다. 오히려 自身에게 無意味한 情報라든가 해로운 情報가 全體量에서 비교도 안될 정도로 많다는 현실이다. 거기서 情報의 選擇·整理·活用の 技術이 요구되는 것이다.

막말로 처세에 요령좋은 사람이라는 말은 조금 바람직하지 않은 이미지를 느끼게 하지만 人生의 達觀者라면 自己自身도 조금은 남고 싶다고 생각되어 짐은 묘한 것이다. 요컨대 그와 같은 사람은 情報의 수집이나 활용이 좋은 사람으로서, 社會와의 調和에 뛰어난 才能의 소지자인 것이다. 그러나 前者와 後者와의 浬앙의 차이는 본인의 德性評價에 있는 것이 아니겠는가.

### 情報收集과 選擇의 技術

정보를 수집하는 경우의 目的·範圍·時間의 問題에는 限定條件이 있다고 말했으나, 그것은 당연하고 적절한 方法과 技術을 필요로 하는 것이다. 또 有用한 새로운 情報를 항시 얻기 위한 마음가짐이 그 前提로서 중요하다.

### 情報收集의 前提條件

1. 항상 問題意識을 가지고 있을 것.
2. 自己가 무엇을 알아야만 할까 하는 自覺을 가질 것.
3. 無關心·無氣力·無感動한 精神狀態가 最大의 阻害條件이 됨을 自覺할 것.

### 정보의 選擇

1. 가치있는 情報選擇의 밑도는 본인의 予備知識과 專門能力의 정도에 정비례한다.

2. 먼저 生情報自體의 價値判斷이 重要하나, 價値가 높은 情報일수록 二次加工(企劃)을 거쳐서 활용되는 정도가 높아지게 된다. 그 프로세스의 連想能力이 重要하다.

3. 情報入手源과 情報의 성격에 따라 選擇의 기준에 커다란 차이가 있다.

### 정보收集과 選擇技術

#### 1. 收集技術

가. 人間關係를 활용 — 거래처·친구·知人·선배후배·業者·메이커 등, 이들 중 가장 人脈이 강한 것은 친우이다. 친우들 중에서도 더욱 강한 연관관계는 학교동창·事業上의 친우·戰友·취미회 모임會員의 순서이다(岩崎隆治氏). 좋은 학교를 지향함은 옛이나 지금이나 변함없음은 좋은 스승과 친구를 생애를 통해 교제

할 수 있는 점에 커다란 가치가 있기 때문이다.

나. 매스컴(情報機關)·業界新聞·會社情報·專門誌·專門書籍 등의 활용

다. 金融機關·政府機關·審査機關·業界團體·講習會·研究會 등의 情報活用.

## 2. 듣는 技術

가. 相對選擇의 着眼點이 重要

누구에게 무엇을 들을 것인가의 目標을 自己自身으로부터 먼저 파악하여 들 것.

나. 듣는 초점에 따라서 情報의 질이나 精度에 큰 차이가 있다. 그 분위기나 시간의 배려도 필요하다. 기대하는 情報의 질에 따라 會社·自宅·料亭 등 장소의 선택에 신경을 배려하는 것은 그같은 意味가 있기 때문이다.

다. 이야기를 하는 상대방·場所의 設定이 적절하더라도 듣는방법의 좋고 그름에 따라 얻어지는 성과에 커다란 차이를 생기게 한다. 말하는 기술·要點을 포착하는 방법 등에는 많은 연구와 상당한 經驗이 필요하다. 이런점이 현대의 젊은 사람들에게는 심어주는 교육에 습관이 되어 생각하는 교육으로부터 멀어진 감이 있다. 그러므로 받아 들이는 입장으로 듣는 것은 잘해도 적극적으로 필요한 것을 들어서 알아내는 것에는 미숙한 것 같다. 또 정확한 어휘를 알지 못하여 회화용어와 문장용어의 구별을 못함이 심하게 눈에 띈다.

## 3. 읽는 技術

가. 문자에 친숙해 지는 것에서 부터 모든 것이 시작된다. 學生時代를 통하여 걸읽기식의 공부만 하게 되면 社會에 나와서 그 습관을 고치기란 대단히 어렵다. 文字의 내용에 자신의 마음을 투입하는 습관이 몸에 젖게 되면 이해력도 높아지고 長文의 책을 읽는 것도 별로 힘들이지 않고 읽을 수 있게 된다.

나. 단어가 가지고 있는 意味를 정확하게 알 것. 될 수 있으면 그 語源에도 관심을 가지게 되면 文字에 적극적인 흥미를 가지게 될 것이다. 常用漢字는 읽기 편하고 쓰기 편하도록 지나치게 重要性을 두었기 때문에, 개선된 부분과 개조된 부분으로 인하여 語源에서부터 완전히 이탈한 별개의

독립 文字로서 사용되는 점도 있기는 하다.

다. 단어가 가지고 있는 意味와 동시에 한결의 文章 그리고 전체의 내용을 재빨리 파악하는 훈련이 필요하다. 정확하게 신중히 읽는 것만이 전부는 아니다. 목적에 맞추어서 亂讀, 대각선 읽기, 빼고 읽기의 기술은 때에 따라선 有用性을 가질 때가 많다. 新聞用語의 경우도 한정된 지면에서 정확하게 情報를 전달하고자 하는 重點 때문에 일종의 생략이나 함축된 짧은 표현을 하고 있다. 그런 意味로부터 文章으로서의 長短點을 함께 하게 되겠으나 배울 점이 있는 것은 확실하다.

라. 쓰는 방법에 관련된 문제가 되겠으나 신문기사나 보고서의 내용, 그 표현방법으로 4W 5H의 법칙이란 것이 있다. 듣는 방법·읽는 방법의 기술로서도 이 습관을 익혀 두면 대단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된다. 그 意味로서는 누가·언제·어디서·무엇을·왜(어떻게)라는 내용, 사실을 전달하는 요건으로 지적되고 있는 것이다.

마. 情報를 팔기 위해서는 資本을 투자할 필요를 自覺해 들 것. 범람하는 많은 情報 중에서 가치있는 많지 않은 情報를 찾기 위해서는 돈과 시간과 노력이 당연히 필요하다.

## 情報整理와 活用

自己의 目標과 판단에 의해 수집하고 선택한 情報를 먼저 資料의 형태로서 보존해 둘 것. 그리하여 필요에 따라 발췌하고 새로운 情報로서 다시 만들어 가는 것이다. 收集한 情報를 언제라도 이용할 수 있도록 加工하여 준비해 둔 것을 情報整理라고 한다. 다시 말해서 정리해 버리는 것이 아니고, 活用하기 위한 수단으로서의 作業段階이다. 항상 보다 새로운 정보와 보다 가치있는 정보를 구하면서 한편으로는 가치가 절감된 지난 情報라든가 쓸모가 없게된 情報를 제거해 가는 마음가짐이 없다면, 찾고자 하는 신선하고 바른 價値의 情報라든가 即載的인 效用을 기대할 수 없다.

요즘과 같은 社會의 推移, 技術革新의 주기(사이클)가 짧은 상황에서는 하나의 情報價値도 역시 짧은 수명으로 그 역할을 끝내는 경향이 현저하

다. 情報中에는 소중하게 保存해야 하는 것도 있으나 비즈니스 情報의 경우에는 대개 그같은 것은 별로 없고 스피드와 정확도를 중요시하는 것이 많다.

이상의 前提를 근거로 하여 情報의 整理와 活用 방법과 문제점에 언급하고자 한다.

1. 選擇段階에서 관심을 갖는 중요성과 높은 感受性 등, 다시 말해서 좋은 안테나를 가져야 하는 중요성을 설명했으나, 整理段階에서는 分類方法과 加工方法이 중요하다.

분류방법의 原則은 될 수 있는 한 번거롭지 않은 단순명쾌한 방법에 의함이 이상적이다. 싹싹하고 스피드하게 그리하여 필요에 따라 즉석에서 이용할 수 있는 시스템이 무엇보다도 바람직하다.

加工方法에서는 分類·整理하기 위한 一次加工과 최종적인 目的으로 活用하기 위한 二次加工으로 나누어 진다. 目的에 따라 一次加工만으로 活用될 수 있는 情報도 있으나, 經營情報나 營業情報에는 二次加工을 필요로 하는 情報가 압도적으로 많다. 이 二次加工을 일반적으로 企劃이라 부른다.

2. 情報整理에 대한 시간적인 체크의 타이밍은 經營的 분석보다도 한발, 한 싸이클 빨리 실시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면 일주일, 반달간, 1개월, 3개월, 6개월, 1년으로 짧은 分點을 정해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것은 앞에서 말한 바와 같이 社會的 싸이클의 스피드의 문제와 情報의 入手·활용에도, 또한 사람끼리, 비즈니스 중에서도 경쟁이 존재하는 사실이 하나의 이유이다.

두번째의 이유로는 情報의 新鮮도와 陳腐化에의 대응, 세번째 이유는 될 수 있는 한 빨리 버리기 위함이다.

3. 항시 問題意識을 가짐으로써, 이야기나 文章 속에서 자신의 마음에 확 와 닿을 때, 강하게 의문을 느낄 때, 무엇인가 생각해 하여지는 것이 있을 때, 자기로서는 가치있는 情報이지만 중요한 결정을 하기 위한 자료로서는 情報의 正確度를 확인키 위해서 이중 체크가 바람직하다.

確率論에 의하면 單純情報와 이중 체크에 의한 情報의 正確度는 50배의

차이가 있다고 한다. 예를 들어 新聞 情報의 경우, 2-3의 他新聞과 비교해서 보는 것이다. 論亂의 경우에는 다른 關係者에게 확인해 보는 방법이 있다.

4. 資料에는 꼭 人手한 經路와 날 짜를 記入해 둘 것. 情報의 新鮮度를 수시로 확인될 수 있도록 해 둘 것과 그 情報의 내용을 더욱 깊이 追求할 필요가 생길 경우를 대비한 준비를 해 둘 것. 더구나 필요에 의해서는 印象·意見을 첨가해 두는 加工이 나중에 크게 도움이 된다.

5. 情報를 파악하기 위한 최소한의 도구는 항상 가깝게 휴대하여 둘 것. 일반적으로 최소한이란 샤프·연필·볼펜·메모지 또는 수첩·명함類이다.

建築家로서는 그외에 자라든가 축척자(Scale, 20cm 정도 길이의 대나무로 된 주머니에 들어가는 것이 편리함), 샤프·연필에는 지우개가 부착된 것이 편리하고 나아가선 휴대용 소형계산기 정도를 常備하는 것이 이상적이다.

6. 資料는 잘 써두는 것보다도 알아보도록 하는데 중점을 두고, 특별한 목적 외에는 깨끗이 써둘 필요는 없다. 그대로가 가치있는 情報를 초속하게 처리할 수 있고, 또 용이하게 活用할 수 있기 때문이다. 차라리 그 資料들의 整理方法에 집중 연구하는 편이 意味가 있다. 整理方法에 대해서도 절대로 깨끗할 필요는 없다. 要는 언제나 필요에 따라 끄집어 낼 수 있고 자유롭게 取捨選擇(追加·교환·폐지 등)이 될 수 있는 것이 이상적이다.

7. 情報의 分類·整理方法에 있어서도 단순한 經營資料로서의 整理方法이 아니고 社會情報·經濟情報·經營情報·組織情報·人事情報·金融情報·稅務情報과 같은 細目別分類가 생각되어 진다. 이 분류방법에 대해서도 필요에 따라서 또는 情報量에 따라서 끌어내기 쉽게 정리하는 방법이 각 時點에 있어서 가장 이상적이다. 요컨대, 빈약한 情報는 실제로 이용되지 않고, 情報가 너무 많아 산만한 정보는 의미를 갖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의 目標로 압축하여 特定意味를 갖는 情報가 되지 않으면 目的에 적합치 않는 것이 情報의 특성이다.

8. 專門인 정보에 대해서도 그냥 設計資料라는 整理方法에 의해 내용이 충실하게 됨으로 인해 오히려 수습이 어려워 지게 된다. 또 活用段階에서도 찾아내기가 곤란해 진다. 따라서 정리방법은 다음과 같은 요령에 의함이 현명하다.

#### 가. 專門別分類에 의한 方法

意匠·構造·設備·材料·經濟(코스트)·法令·業界事情 등의 分類方法 더욱 細分하면 디자인·외장·내장·외構·造園·都市計劃·環境計劃으로 나누워지고, 構造에 의한 分類法으로는 木造·鉄骨造·鉄筋콘크리트造·鉄骨鉄筋콘크리트造, 工場生産方式(프리패브구조)·超高層構造(柔構造), 基礎構法 등으로 나누어 진다.

#### 나. 用途別分類에 의한 方法

住宅·맨션·事務所·商店·大規模商業建築·銀行·工場·倉庫·交通建築의 用途別 資料化

다. 材料別·部門別 分類에 의한 方法. 鋼材·콘크리트 製品·木材·알루미늄製品·金屬製品·化學製品·廚房機器·空調機器·輸送機器·衛生機器·電氣製品·外裝材·內裝材·베네펀·看板·造園材料 등으로 細分化된다.

#### 情報創造와 提供

情報로서의 設計監理業務는 어떻게 評價될 수 있는 것인가. 그 커다란 특징은 創造性과 綜合性에 있다고 말할 수 있겠다. 그것을 담당하는 建築家의 創造能力과 綜合能力에 의해서 당연히 情報로서의 質도 左右되어 진다.

建築家の 업무로서 요구되어 지는 內在的 條件에는 技術的 條件, 藝術的 條件, 法律的 條件, 社會的 條件, 經濟的 條件 등이 있고 그것들을 종합함으로써 성과는 効用性·機能性·耐久性·安全性·快適性들의 要充足이 기대된다.

建築家は 프로페션으로서의 입장에서 이들 諸條件을 최대한 충족할 수 있도록 연구와 노력이 專門家의 책임으로써 요구된다. 그러나 일본에서는 오늘날에 있어서도 建築家の 社會的 評價가 확실히 못하고, 設計監理業務의 質的 評價, 質的 比較 基準도 아직 社會의 일반적 知識에서 요원한 상태에 있는 실정이다.

西歐諸國에서는 商店主나 運轉手와 같이 一般市民 레벨의 사람들까지도 건축에 대한 자기의 판단기준을 가지고서 자기가 살고 있는 마을에 세워진 수준급 이하 建物の 設計者 이름을 기억하고 있다고 들은 일이 있으나, 그것은 일반시민의 文化·藝術創造에 대한 關心度를 나타내는 것으로서, 자기가 사는 환경 및 생활의 充實度로 연결되는 문제임을 인식하고 있다는 것이 基本意識으로 존재하기 때문이다.

일본의 경우, 文化를 市民生活 속에 융화시키려는 혼련이나 습관이 빈약했었다는 점과 사실상의 市民社會가 얼마 전까지도 존재치 않았다는 것이 文化가 社會的 普遍性을 가질 수 없었다는 최대의 원인이 아닐런지.

情報로서의 質的 評價能力이나 比較能力에 뒤떨어지는 建築主는 당연히 그것을 經濟的으로 올바르게 評價하는 것도 불가능하다.

그러나 建築設計라는 創造行爲는 一品生産的이며 또 注文生産的 업무이기 때문에 그 經濟的 評價도 역시 建築主라는 特定對象에 한하게 된다. 같은 技術的 所産에 의한 機械나 電氣 製品類와는 달리, 같은 設計로부터 大量生産方式으로 불가능한 宿命性과 동시에 轉売行爲가 불가능하다는 결정적인 經濟的 弱점을 가지고 있다.

또한 建築의 創造行爲와 가까운 분야이면서도 繪畫나 彫刻·家具作品은 특정한 고객에 속박받는 일 없이 商品으로서 市場性을 가지고 있는데 비해 建築의 設計圖書는 그와 같은 普遍的 商品性을 가질 수 없는 성격인 것이다.

따라서 設計監理業務의 經濟的 評價는 社會的으로도 정당한 평가를 제대로 못받고 있으며 여하튼 建築主의 主導로 經濟的인 평가에 치우치기 쉽다. 즉 어떠한 가치있는 情報나 商品이라도 경쟁해서 그것을 매입하려는 손님이 存在하지 않는 한 그 經濟的 評價를 결정하는 主導權은 매입자의 손에 있음은 經濟的 원칙이다.

建築家業務의 本來的 가치는 그 發想에서 부터 業務의 프로세스, 건축으로서의 成果에 이르기까지 全段階에 存在하나 그 中間過程에 投入되는 專門家의 에너지가 정당하게 평가되어짐

은 기대하기 어렵다. 그것은 設計圖書라는 成果物 이전에 建築主에겐 보이지 않는 숨은 情報資料가 많이 존재하며 그들의 시행착오와 체크에 의한 取捨選擇의 결과로서 하나의 設計가 완성되는 사실이 無視 또는 經視되고 있음이 커다란 하나의 원인이다.

또 建築이 建築主에 의해 제대로 評價되는 시기는 建築을 計劃할 때가 아니고 完成하는 時点이나 나아가선 3년·10년 사용하고 난 時点에서다. 建築을 構成하는 재료와 그외의 有形物은 그 時点에서 時價를 원칙으로 하여 評價되어 지지만 無形의 情報과 그 무엇을 介在함으로써 표현되는 設計行爲는 적어도 經濟的 評價만으로는 대단히 불리한 입장이다.

앞에서 情報로서의 質的 차이가 建築家の 創造能力과 綜合能力에 있어서 左右됨을 기술한 바와같이, 建築家가 가지고 있는 知識과 能力의 發揮自體도 過去의 情報과 創作時점에 있어서의 顯在的 情報, 潛在的 情報로서 綜合的 활용의 相乘效果가 있음을 알아 둘 필요가 있다.

비록 建築主가 結果로서의 評價만의 理解에 지나지 않더라도 建築本質的인 正當한 평가의 意識이 있다면 建築家の 人格·思想·業務프로세스까지 이해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그 방법으로서 는 지금 常識的인 것이지만 建築家를 보는(觀客) 것과 이야기(討論)와 作品에 接近(확인)하는 것이 이해하기 위한 확실한 방법이다.

### 建築家の 側面에서 본 情報

建築家가 專門的인 입장에서 창조하여 제공한 情報는 극히 다양한 동시에 高度의 質이 요구되며 또한, 그것에도 불구하고 일반 建築主에게서 正當한 經濟的 評價를 얻는다는 것이 어렵다는 것은 前述한 바와 같다.

1977년 7월 建設部長官은 建築士法 제25조의 規定에 의거한 建築士事務所의 開設者가 그 업무에 관해서 청구할 수 있는 報酬의 기준을 정했다.

이것은 단순히 말하면 原價主義의 思想에 입각한 報償加算費 방식이고, 그 構成은 ㉔直接人件費+㉕直接經費 및 間接經費+㉖技術料 등 經費의 합계를 標準하는 것이다.

이 중에서 創造行爲에 대한 평가에

相當되는 部分은 ㉔의 技術料 등 經費의 項目이지만, 長官의 告示에 있어서는 이 數值的 評價는 빠져 있다. 그러나 이 告示에 첨가된 解説書, 또는 1977년 3월에 의한 建設部 業務報酬調査委員會 報告書에 의하면 ㉕의 直接人件費의 50%를 標準으로 하고 있다. 長官 告示에 있어서는 이 數値를 明記하지 않은 眞實된 이유는 建築士는 自己業務의 創造的·技術的 가치를 注文者(建築主)와의 協의에 起因된 理解와 合意에 따라 獲得하는 것을 前提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되어 지고 있다. 여기에 있어서 또한 日本的 현실인 文化的·創造的 行爲에 대한 理解는 되지만, 評價는 낮다 라는 文句에서 보아도 여실히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그 반면에 있어서는 前述의 퍼센테이지를 나누지 않는 한은 반드시 일률적으로 낮은 評價라고 斷言할 수 없는 判斷이 선다. 要是 建築家 측의 技量과 業務의 正當한 실천에 의해 획득하여야 된다는 의미라고 해석하면 당연한 것이고 특별히 불만을 말하게 되는 이유도 아닐 것이다.

따라서 長官 告示에 의한 原價主義는 本質的으로 經濟的 評가를 기반으로 해서 약간의 技術과 創造에 대한 評가를 加味하는 것을 示唆한 것이다.

日本建築家協會는 이것에 대해서 行政權力이 리더십을 취하고 있는 현실에 있어서는 經濟論理의 內에서는 가능한 許容範圍에 있을 것이다 라는 現時점에 의한 評價를 하면서도 過去의 料率方式인 原價를 기반으로 한 效用主義이고 社會的으로도 긴 歷史의 뒷받침을 가지고 容認되어진 것에 대한 經濟論理에만 치우친 측면에서 게다가, 政治歪曲의 延長線上에 있어서 壓力을 가한 것에 대해서 강하게 반발한 것이다. 建設部도 이 점을 솔직히, 이것은 하나의 基準을 明示한 것이고 이것을 社會的으로 정착시켜 가는 것은 建築士의 實踐에 의한 노력의 뒷받침을 바라는 것으로서, 이 基準을 結論으로서가 아니라 出發線으로서 생각하기 바란다 라고 表明하고 있다.

이상과 같은 今日의 상황을 前提로 해서, 建築家の 업무가 建築主와 一般 社會에서 正當한 評價를 얻기 위해서는 어떠한 理念과 方法이 필요할까.

以下는 建築家가 創造한 情報를 어떠한 形態로 社會에 제공하고 공헌할 것인가 하는 觀點에서 기술하고자 한다.

1. 企業情報과 프로페션으로서의 情報의 本質的인 차이를 自覺하는 것이 필요하다. 단지 建築主의 直接的인 要求를 만족하는 것에만 현혹되어서 社會의 長期的 展望을 해결하는 使命을 망각해서는 안된다

2. 단순한 知識에 의한 情報의 部分販賣가 아니고 信念에 의거한 實踐의 뒷받침이 필요하다. 물론 專門的 情報는 創造性과 綜合性을 충족시키고 特定の 목적에 대해서 충분히 適應할 수 있는 것이 되어야 한다.

3. 프로페션이라는 것은 社會的 中立의 立場에 있어서 公共의 利益과 人間의 존엄을 지키는 職業人인 것이다(日本建築家協會).

따라서, 建築家는 資本主義社會의 管理體制·經濟優先의 論理에 기울어지는 일이 없이 自由職業人으로서 어느 정도의 獨立性을 확보한 위치에 있지 않으면 안된다.

일을 통해서 資本主義社會의 結核을 수정하는 立場을 버려서는 안된다. 建築家는 자기의 主張을 實証的으로 蓄積해 가야 된다.

4. 專門情報로서는 어떤 특정의 목적에 대해서 특별한 答을 가지고 응하지 않으면 안된다. 소프트한(Soft) 創造思想과 하드(Hard)한 技術의 풍부한 蓄積과의 多面性이 요구되는 성격을 가져야 한다.

또한, 요구의 最少範圍內에서 答할 것만이 아니라 보다 高度하게, 보다 넓은 視野에 입각한 指導性과 個性이 필요하다.

5. 建築主의 要求内容이나 조건을 충분히 이해하고 調整造作한 뒤에 專門家로서 어떻게 대응할 것이라는 것을 검토한 결과와 또한 建築主側의 素案이나 構想을 다시 검토하여 이해를 구할 것.

理解됨에 따라서 專門的 情報의 價値, 또는 單價에 대한 正當한 評價가 기대된다.

또한 專門家로서 그 業務에 대한 責任限界나 守備範圍에서도 認識을 明確化하는 것이 가능하다.